

월간 스토리 문학 포천사람에 의해 창간

포천종교 학생회장 출신 김순진 소설가



포천 종교 학생회장 출신 김순진(金舜鎭, 43. 사진) 소설가에 의해 월간

스토리문학(사진)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지난 2000년7월부터 매월 이달의 작품을 엄선하여 문학인들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매달 올해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가지망생들을 발굴하여 명실공히 인터넷에서의 진정한 순수문학을 이끌어온 인터넷 스토리 문학관에서 월간 스토리 문학을 발간했다.

그의 호 녹산(鹿山)은 주철원 한국연서회장이 지어준 것으로 한때는 서예에 심취하였으나 문학 본연으로 돌아와 2002년 월간 문예사조 시 부문에 시 「모달리아나의 도시」와 2편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03년에는 월간 문예사조에서 소설 「기원」으로 당선하였으며 시, 소설, 수필, 동화, 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창작력을 보이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김 작가는 월간 시사문단 편집국장, 도서출판 포푸리북 편집장



한영애콘서트



한영애와 트로트의 만남 "BEHIND TIME" a memory left at an alley 공연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등이다.

및 주간, 월간 모던포엠 편집국장 등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문학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스토리문학을 발행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고향인 포천에서 자라난 추억과 풍습을 바탕으로 향토적 색채가 짙은 시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활동시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의 시어들은 누구나 들으면 그립고 달리고픈 고향 냄새 물씬 나는 시어들로 그는 늘 '옛것을 되살려 새 것을 지향한다.'는 옹호자임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밝고 맑게 정화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김병익 기자 best114@hitel.net

한영애의 음악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어느 장르의 음악과 만나면, 그녀가 노래하면 온전히 한영애의 것이 된다.

가장 혁신적인 음악인 블루스를 해도, 60년대 말의 백인 히피문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포크를 부를 때에도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항상 한영애라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게 된다. 가슴속 어느 곳에 응어리진 한스러움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녀의 목소리. 듣는 이들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과 같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 선사시대 어느 여사의 주문과도 같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힘이다.

정병익 기자 jpk61@hanmir.com

포천의 명현탐구 (96)

애국지사 (愛國志士)

강지형(姜芝馨):1881(고종18)~1931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명(異名)은 시형(始馨)으로 포천 가산면 정교리 출신이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자 항일운동을 모색하던 중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동지인 이현교(李憲敎), 이민태(李敏台), 한남수(韓南朱) 이규갑(李奎甲), 김사국(金思國) 등과 서울 내자동 한성오(韓聖五)의 집에서 3.1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임시정부 및 취지서를 작성하였는데 강지형은 13도 대표 25인 중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그 후 강지형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자유롭지 않자 그 해 만주로 망명하여 길림성(吉林省) 관전현(寬甸縣)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총재인 박장호(朴長浩)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대한독립단의 취지를 듣고 이에 입단하였다. 그 후 박장호로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경기도에 대한독립단 지단(大韓獨立團 支團)을 조직할 것을 권고 받고 1920년 1월 경기도지단 조직 전권위원에 임명되어 서울로 들어와 상왕십리에 거주하며 대한독립단 경기도 지단 조직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대한독립단은 복벽(復? 왕정을 복고시키겠다는 것)적인 인사들이던 박장호, 안병찬(安秉燾) 등이 만든 단체로 중국 유학현(柳學顯) 삼원보(三源堡)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이다. 이 대한독립단에서는 국외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주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국내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중앙에 총기관을 설치하여 국내외와 연락을 공고히 하여 군자금 모집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기환(金起煥)을 전권 특파원으로 국내에 파견. 평안도, 황해도 지단 설치 작업이 순조롭게 되자 서울에다 중앙 총기관을 설치하려고 1920년 8월 서울에 들어와 동지를 규합 활동 하였다.

한편 대한독립단 총재 박장호의 지령을 받고 경기도 지단 조직을 위해 활동 중인 강지형은 그의 집에서 김기환의 방문을 받고 서로 제휴할 것을 협의 하였다.

그 후 자주 회합하여 지단 설치를 위한 유인물 작성 배포 유력인사 포섭 등 준비작업을 시행하였다.

- 내용을 살펴보면
- 1.격고국내진신사림(檄告國內維新士林)이라는 문서를 배포.
- 2.군자금 모집과 통신을 위한 통지문 사령장
- 3.독립군이 국내에 진입할 때 호응할 것
- 4. 동포 중 일본의 고위관리직을 퇴직하고 독립단에 협조할 것
- 5. 경고 경향 각부호문(警告京鄉各富豪文)을 발송 군자금 제공할 것. 불응하면 결사대를 파견 형을 집행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 김기환과 강지형은 계속 협의하여 독립군이 국내에 진입시 일제히 호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노력하였다.

고심 끝에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堯)을 총지휘관으로 삼으면 많은 민중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친왕에게 접근하려 하였으나 일제의 경호가 심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강지형은 부친 강일영(姜一泳)이 의친왕의 무관(武官)인 어담(魚潭)의 한문선생이라 이를 연구로 그를 설득하려고 1920년 11월 9일 어담의 집을 방문하여 그를 만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었으므로 가지고 간 문서를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왔다. 그 후 11월 11일 김기환과 함께 어담의 집을 재차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잠입해 있던 일제에게 피체되었다. 그 후 그가 대한독립단의 지단 설치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관계인사 13명이 피체되고 다수의 독립운동 관계문서가 압수되었다.

강지형은 경성지방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영혼을 깨우는 슬라브의 합창

6월19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남성합창단 내한공연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를 울리는 장중하면서도 깊은 화음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의정부에서 마련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오는 19일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으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국립남성합창단 초청 공연을 갖는다.

모스크바 국립남성합창단은 러시아 최고의 성악가인 21명 남성들의 깊고 심오한 음색으로 울림있는 감동을 만들어 낸다. 그들의 소리는 깊고 우수를 느끼게

하는 슬라브 특유의 중후한 저음부로 시작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서 피라미드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화음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비슷하여 더 큰 감동을 전한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시적인 가사를 애수에 젖어 감칠 맛나게 표현하는 러시아 가요 〈검은 눈동자〉와 모래시계의 배경음악으로 쓰임으로써 널리 알려진 〈백학〉, 슬픈 노래가 많은 러시아 민요 중 몇 안되는 즐거운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칼린카〉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오페라 하나 중 〈경기병의 노래〉,〈러시아 대지를 노래하라〉 그리고 〈헝가리 무곡〉, 〈오 나의 태양〉과 우리의 노래 〈이리랑〉,〈친구여〉등 풍성한 레퍼토리로 웅장하고 광활한 러시아의 소리를 선사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남성합창단은 1988년, 러시아 정교회 1,000년을 기념하여 모스크바시 문화성의 후원으로 공훈 예술가 발레리 리빈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최고의 성악가들로 구성·창단됐다.

(공연문의: 031-828-5841)

김병익 기자 best114@hitel.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9)

6.25전쟁과 포천 전투



연급되었던 조선민주당 조만식 장로였다.

한국전쟁 당시 포천지역은 북한 제1군단,군단장 김용 중장,예하의 2개사단과 1개기갑여단의 대 공격을 받았다.북한의 포천 지역공격은 제3사단(사단장 이영호 소장)1만2천명,제4사단보병대(사단장 이권무 소장)1만2천명,제105기갑여단 4천명(여단장 유경수 소장)등 2만 8천명에 달하였다.

주요장비는 전차 150대,자주포 62문,122mm유탄포 48문,76mm 곡사포 72문 4.5mm 반전차포 96문과 120mm 박격포 52문 및 82mm 박격포 162문 등 북한 총공격무기의 3분의1이 포천지역에 집중된 셈이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군은 의정부에 지휘소를

둔 7사단(사단장 유재홍 준장) 제1,9연대가 사지리,초성리,적성간의 47km의 넓은 지역을 총 9천698명이 방어하고 있었으나(실제로는 6천788명이었다.) 제7사단은 예비대 없이 제9연대(연대장 윤준근 중령)가 유일선연대로 포천의 정면,제1연대(연대장 함준호 대령)가 좌일선연대로 동투전정면에 배치된 상태였다.전투장비면에서도 중공품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보수하기 위해 부평으로 이동하여 보유율 40%에 불과한 상태였으니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세였다. 남침은 개시되어 불과 3천 400명으로 북한 1개사단과 1개기갑연대와 싸웠는데 더구나 1개대대만이 일선경비를 맡고 전투에 임하였으니 당시 적적에

얼마나 어두웠나를 알 수 있다.6.25 당일 내고향 포천을 방어하기 위해 용감히 싸웠던 장병들을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제1대대장 유항박 소령의 내촌면전투-기습작전,제3중대장 최춘삼 중위의 박격포 공격으로 적전차 2개격퇴작전,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제10중대(임운선 중위)제9중대(최규선 중위)제11중대(대리 이창수 중위)원들의 가재리 오장동 점령작전,신북대교가랑산 점령작전등 투의 현장인 기지리전지가 그분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특히신북대교 매복 로켓포팀 이진성 하사의 용진분투로 적전차를 명중시켰던 일도 그 용사의 전사와 함께 기억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포천출신 장병으로는 육사생도 1기로 참전하였던 김문한 대령과 정병규 상사등(내촌면=퇴계원전투 및 초성리전투)도 포천 6.25전사에 기록할 만한 사실임을 명기해 둔다.

필자연락처 : 02-932-2434

유니어 아동복 전문 “팝 키즈” 송우점

0~17세까지 유니어 아동복 전문점

-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팝키즈 송우점 -



깔끔한 실내분위기에 예쁘게 진열된 제품들
※ 팝키즈는 송우택시부앞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40-10 TEL: 031-542-8775 / 대표: 국승준